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물을 따로 특별하게 여겨본 적이 없다.

아무런 느낌도, 생각할 것도 되지 못하는 그냥 아무데나 있어서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저 물이었다. 그런데 요즘엔 그 물이 숫자로 바뀌어 나에게로 온다. 나는 그 물을 가득 담아 두었다가 몇해전의 홍수도, 가뭄도 새삼스럽게 놓고 끄집어내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마음대로 물을 만진지가 벌써 4년이다. 세월이 우수라고 했던가.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것이 시간과 물의 유사

풍월 덕분이다.

물은 앙리 뒤낭이 보았던 전쟁터의 군인들을 비롯한 모든 목마른 이들을 해갈시키는 물질이며,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에게는 생명 그 자체이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학교 때 생물시간에 배웠듯이 인간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생명을 유지시키며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역할을 한다. 단가, 또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등의 거창한 용도로 쓰인다던가 하는 것들을 들먹거리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 시간에 손을 씻는데도 필요하고, 아니면 집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는데도 필요하고, 개구쟁이 우리 지훈이가 물총놀이를 하는데도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물’ 예찬

점이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 그렇다면 이것은 큰 오류가 아닌가 생각된다. 시간이란 ‘타임머신’이 없는 한 과거로 거슬러 갈 수 없지만, 지구상의 물은 유한하여 나 자신은 그 물이 언젠가 물인지 알아보지는 못해도, 내가 어릴 때 보거나 마신 물을 10년 후에 만날 수도 있겠고, 옛날 어느 계곡의 맑은 물이 오늘 비로 내 머리 위에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라시대에 땅 속으로 스며든 암반수를 지금 마시고 있다고도 한다. 이렇게 물에 대해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 것도 내 작업 상자에 숫자로 가득 찬 물을 만지면서 이것저것 물에 대해 얻어들은

그뿐인가! 곧 다가오는 뜨거운 태양의 계절에 즐기는 놀이들을 보아도 모두 물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들이다. 올해는 어디로 갈까를 결정하는 데에도 시원한 숲속의 물이 있는 계곡, 파란 하늘과 푸른 물이 가득 찬 바닷가가 대부분이며, 그 곳에서 수영을 해도 혹은 발만 담그더라도 물이 없다면 이런 가정은 있을 수도 없다. 즐거움은 더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이 얼면 그 위에서는 얼음을 지치는 즐거움도 있지만 태극마크를 달고 얼음 위를 달리는 김기훈 선수를 보고 우리 모두 열광할 수 있는 기쁨도 모두 물로 인한 것이다. 이제는 전

### 김 혜 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실 연구원)

보다 좀 살게 되었다고 너도나도 타보는 스키라는 것도, 그 옆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넘어지고 자빠지며 타 보는 눈썰매라는 것도, 물이 아니면 빠앗기게 될 신나는 놀이이다. 이제 물은 필수품일 뿐만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빠질 수 없는 존재로서 점점 나아지는 우리들의 생활에 맞춰 주다보니, 참으로 천지간에 여기저기 널려 있으면서도 귀중품이 되는 것을 보면 우리네 인생은 물의 지배 속에서 사는 셈이다.

물의 지배라고 하면 또 다른 면으로도 있다.

연전에 중국을 다녀 온 친구가 양자강 물줄기를 따라 여행하다가 삼협에 이르니 이 백의 시가 생각나더라고 했다.

물이 시성 이 백을 삼협으로 실어 나르던 도중 이 백이 숨바꼭질하는 달과 양자강의 아름다움에 취해 읊은 『蛾眉山月歌』가 그것이다.

蛾眉山月半輪秋 影入平江水  
流  
夜發清溪向三峽 思君不見下  
州

아미 산에 걸린 반달  
그림자는 평강강에 비쳐 흐르네.  
밤에 청계를 떠나 삼협으로 향하는데  
그대, 달을 보려 해도 산 뒤에 숨어 보이지 않고

배는 그냥 투주(지금의 重慶)로 내려가 버리네.

나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십여년전 학창시절 배우던 시보다도 요즈음 중국이 자랑으로 여기는 삼협댐이 먼저 떠올랐다. 이것도 아마 숫자로 된 물 속에 살기 때문일 것이다.

물은 댐에 갇혀 또 다른 엄청난 일을 꿈꾸고 있다. 기왕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데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해 보자는 것이다. 그 결과로 우리는 물의 지배가 아니라 물이 없으면 한시도 삶을 이어갈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뉴스도 보고 김건모도 보고 목욕탕집 남자들도 보는 텔레비전, 여름의 한가운데서 집집마다 사용하여 아파트 전체를 간혹 암흑에 빠뜨리는 에어컨, 그리고 내가 매일 더불어 살고 있는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명의 이기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전기를 만들어 내니 물의 능력이란 위대하기조차 하다.

삼협댐이 완성된 후 이 백이 나타나 이를 본다면 이전의 자연의 아름다움은 사라졌어도 댐의 웅장함과 그 엄청난 양의 물에 놀라 이에 못지 않은 명문이 나오지 않을 까도 싶다.

물은 이렇듯 인간을 물질적인 풍요로 가득 차게 하는 것만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물이란 원래 자신이 처해 있는 곳에 따라 우리의 정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물

은 인간 가까이에 있기 전에는 그 나름대로 우아하기도 하고 어떤 격조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물이 속세에 내려오기 전에는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면,

모든 강의 근원이 될 듯한 깊은 산 속.

바위틈으로 한 두 방울 듣는 맑고, 차고, 투명한 물.

그 물이 고인 바위 위의 웅달샘은 주위의 적막함과 함께 차라리 가까이 하기 어려운 신비감마저 감돈다.

이 물은 있는 듯 없는 듯한 실개천으로 졸졸 흐른다. 마침내는 마치 가두어 두었던 망아지가 날뛰듯이 아래로 마구 달리며, 깨어지고 흩어지면서 넓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향해 간다. 이렇게 마구 달리던 물은 겁도 없이 낭떠러지를 함부로 뛰어 내려 또 다른 이름인 폭포를 이루게 된다. 그 우뢰같은 소리와 하얀 물거품, 물안개 속에 무지개도 만들면서 물은 또다른 격조로 장엄함을 연출해 낸다.

낭떠러지를 뛰어 내린 물은 주위 경관은 아랑곳없이 급한 불일이 있는 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급히 서두른다.

갑자기 시야가 확 트이면서 밝아졌다. 이제 물도 여유를 조금 부려 본다.

조그만 웅덩이에도 들어가 보고, 냇가에 편 풀꽃도 건드려 본다. 인간이 지어 준 이름으로 시

넷물이 되었다가 조금 큰 강물이 되었다가, 아니면, 작은 곳에 고여 연못으로도 불렀다가 큰 곳에 고여 호수로도 불린다. 물은 본의 아니게 벌써 여러 가지 이름을 지니게 되었다.

이렇게 격조 있는 대상이 된 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무엇이 된다. 주위에 상관없이 홀로 갈 길을 가는 물을 보고 아니 물이 아닌 샘을 보고 폭포, 강, 호수를 보고, 古來의 文人들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예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물을 보고 느끼는 인간의 기본 감정에는 변함이 없어서 시집간 새색시가 가고싶은 고향에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마음을 국경 없이 넘나드는 물에 실어 이렇게 읊어 보기도 하였다.

悠彼泉水 亦流于淇  
有懷于衛 靡日不思  
彼諸姬 聊與之謀

졸졸대는 저 샘물도 기수로 흘러드네.  
위나라 고향 그리워 단 하루도 잊은 일 없네.  
의좋은 시누들과 돌아갈 일 의논해 보았네.  
(詩經· 風· 泉水 중에서)

그런가 하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물인데도 친구와 헤어질 때는 쓸쓸한 강물이 되고 사랑하는 이를 태우고 온 배가 있는 강물은 고마운 강물이 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은 처량한 비도 되었다가 즐거운 눈도 되었다가 하면서 인간의 마음을 달래 주기도 하고 환희에 가득 차게도 해준다. 늘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물을 보고 우리의 선조 고산 윤선도는 자신의 벗 안되는 친구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구름 빛이 좋다하나 검기를 자로 한다.  
바람소리 맑다하나 그칠 적이 하도매라.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윤선도 「山中新曲」 중의 '五友歌')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러 저러한 물을 보고 마음이 울적하면 울적한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물은 자기마음과 같겠거니 하고 마음대로 생각한다.

荊吳相接水爲鄉 君去春江正淼茫  
日暮孤舟何處泊 天涯一望斷

人腸

여기 荊楚 지방과 그대 가는 뚝방은 서로 붙은 水鄉인데, 그대가 갈 長江은 봄이라 물이 불어 끝없이 넓을 걸세. 해가 지면 외로운 버 어디서 머무를까, 하늘 끝을 바라보니, 창자가 끊어질 듯하네.

(孟浩然 送杜十匹之江南)

이렇듯 이름 없는 물이건 유명한 물이건 많은 시인들의 마음을 자극하여 무심치도 유심치도 않은 그냥 물인 것을 해란 강에 흐름으로 인해서 물이 마치 독립운동이나 한 것같이 느껴지게 되고, 머나먼 송바강은 멀지 않은 경기도 정도의 어느 땅인가 흐르는 강인 것 같이 가깝게 느껴지게 되고, 미시시피 강에서 놀던 허클베리 핀도 어릴 적 소꿉친구 정도로 느껴지게 되니 이 또한 모두 물의 능력이며 물의 힘이라면 과찬일까?

이렇게 보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은 이 지구상에서의 존재가치가 제 1위에 놓여야만 될 것 같다.

이제 최고자리를 차지한 물을 마음대로 넣고 빼는 나도 그 물덕에 조금 자부심을 가져도 될 듯싶다. ☞